

지역소식통

군산시 나운 2동 주공 4단지 도시형 치매 안심마을 선정

군산시보건소는 '전북광역치매센터의 도시형 치매안심마을 시범 공모사업'에 군산시 나운2동 영구임대아파트(주공4단지)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치매를 앓더라도 거주지에서 치매환자가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전북광역치매센터,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나운2동 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통합방문보건사업팀, 군산의료원 공공의료팀, 호원대학교, 군산경찰서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치매예방 건강관리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광대 발전기금 기탁 줄이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석승환 교수와 전주 엠디치과병원 김형운 원장이 최근 원광대 발전기금으로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잇달아 기탁했다.

원광대가 위탁 운영하는 안산시립노인병원장을 맡고 있는 석승환 교수는 강연료와 원고료 등을 꾸준히 모아 현재까지 총 5,200만 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기탁했으며, "모교 선배로서 후배들과 제자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기탁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주 엠디치과병원 교정과 김형운 원장도 총장실을 방문해 "앞으로도 모교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관심을 두고, 미려하나마 힘을 보태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소룡동, 산업단지 현장민원 대응 강화

군산시 오식도동에 새롭게 조직된 산업단지민원계가 공단근로자와 오식도동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군산시는 지난 2월 15일 오식도동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의 행정여건과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존 민원봉사과 소속 산단민원계를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소속으로 변경했다.

산단민원계는 기존 단순 제증명발급업무뿐만 아니라 주소 전출입 및 인감신규등록 등 20여 종의 민원업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민원기능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접근성을 높였다.

이형석 동장은 "소룡동 산단민원계의 민원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수순... 한국지엠 군산공장 생산라인 가동 중단...

# 위기의 군산경제 희생 불투명

## 조선소, 정부 지원 기대하기 어려워... 폐이퍼 코리아도 올해 가동 멈출 듯

군산경제의 위기신호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지역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폐쇄 방침에 이어 한국지엠 신차 결함에 의한 생산 중지, 폐이퍼 코리아 공장 이전에 따른 인원감축 등 연이은 악재가 겹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고 있지만, 혼란스러운 국정으로 인해 군산조선소 종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침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산조선소는 개소 후 6500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군산 수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가 매우 컸다.

이 같은 역할을 해온 군산조선소의 도크폐쇄는 1·2차 협력업체와 이와 연계된 업체들의 줄도산 및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져, 5000여명의 근로자가 당장 오갈 곳이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은 지난달 28일 부품 문제가 불거진 신형 '올 뉴 크루즈'의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

신형 크루즈는 지난달 6일부터 군산



공장에서 양산에 들어갔지만 최근 협력사 조달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지엠은 생산 중단 방침과 함께 앞서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 전수 조사를 나간다는 방침으로 생산 재개 시점도 불투명한 상태다.

군산지역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온 폐이퍼코리아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장 이전 추진상황 관련 간담회에서 공장 이전을 앞두고 공장 내 3개 생산라인

중 1곳은 3월, 나머지 2곳은 10월 가동 중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신문용지 3개 생산라인 전체를 포장지 생산라인으로 변경하고, 신문용지 생산규모를 줄여 '전주 폐이퍼 청주공장'에서 생산기로 하고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같은 현실로 군산 지역 경기 호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 "새만금, 창업 특구 지정 아시아 창업 중심지로"

## 김도중 원광대 총장 '매경 새만금포럼'서 제안

원광대학교 김도중 총장이 "새만금을 창업 특구로 지정해 아시아 창업 중심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매경 새만금포럼'에서 이같이 제안한 김도중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형태는 1인 기업, 소기업 체제로 바뀔 것"이라며, "미래의 직업 능력은 취업이 아닌 창작(創作)·창업(創業) 능력으로 우리 원광대는 전교생에게 창업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지구에 창

업 특구를 조성해 미래 아시아 중심의 성장동력 기지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로 전시는 역사 엑스포 공원을 새만금에 짓자"고 제안하면서 "역사 엑스포에는 세계 100여 개국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비롯해 공원과 시장을 만들어 세계적인 연구와 학습 관광지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자"며, "이는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문화 관광을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 노선으로 향후 전라북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창업 특구지정과 역사 엑스포 공원설립은 김도중 총장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으로 참신성과 창의성 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 밖에도 도내 오피니언 리더로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농촌 도시화 사업 등 전라북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및 MBN이 새만금개발청과 공동 개최한 매경 새만금포럼은 새만금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새만금 개발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보건소, 재가암환자 힐링프로그램 실시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가 재가암환자의 정서적 지지와 압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암환자 및 가족들이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재발의지

를 고취하고,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질병 치료과정에 생기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정서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힐링프로그램 내용은 23일 암환자들

위한 올바른 영양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30일 자아회복과 통증완화를 위한 심리치료 원예요법, 4월 6일은 '힐링타임' 다함께 숲길 걷기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오늘부터 17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청암 권병덕 선생 6.25전쟁 호국영웅 김형우 해병대 삼조 선정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국가보훈처에서 3월의 독립운동가에 淸庵 권병덕 선생과 6.25전쟁 호국영웅에 김형우 해병대 삼조(현 하사계급)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병덕 선생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 대표의 한분으로 18세경 동학에 입도한 후 1894년 손병희의 휘하에서 후군의 책임자로 3만 명의 교도를 이끌고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다.

1906년 천도교에 입교하여 교세 확장을 위해 활동했으며, 1918년 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약 소민족의 자결권이 강조되는 등 국제정세가 변화하자 손병희 등이 추진한 독립만세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1919년 2월 26일 선생은 재동 김삼규의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개최된 독립선언식에 참여하였다.

1930년대 중후반 일제가 민족 말살정책을 강화하자 독립투사들의

활동을 수록한 역사책을 저술·간행하려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6.25전쟁영웅 김형우는 해병 독립 제5대대 분대장으로 1951년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김포지구 월암리 전투에 참가했다.

당시 독립 제5대대는 육군 제1사단의 작전지시에 따라 월암리에 정찰대 본부를 두고 개성 방면의 철저한 수색을 감행하며, 장애물 설치, 진지보강 등 방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1951년 7월 23일 2개 소대로 편성된 정찰대는 개풍군 월암리 지역에서 적 1개 연대병력에 포위되어 전멸의 위기를 맞았다. 이에 김형우는 결사대에 자원, 5명의 대원을 이끌고 총탄이 빗발치는 포위망을 뚫으며 침착하게 적 앞 10미터 이내까지 접근, 격렬한 총격전을 벌여 본대의 철수를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안타깝게도 김형우는 수많은 전우의 목숨을 구하고 끝내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군산시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3만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며, 교육급여와 함께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별도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4% 이내)에 해당한다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교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 익산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익산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주변을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범위)내 및 학원가 주변의 식품조리·판매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93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익산시의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무허가, 무표시 식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요위반 사항은 재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해 행정처분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